

#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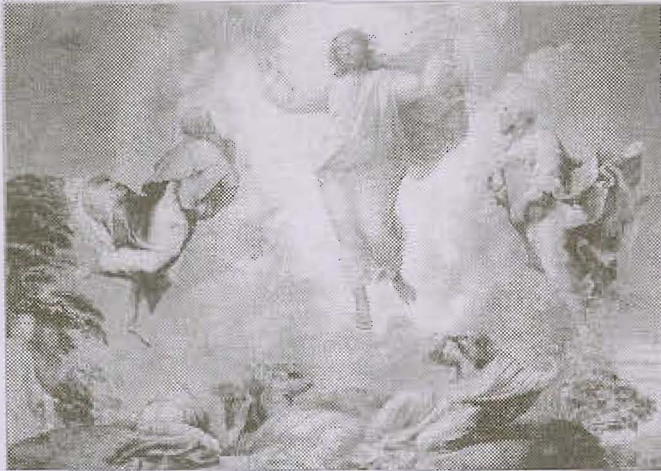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

제33권 13호(다해) 2013.2.24

## [묵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라파엘로, 16c, 바티칸 박물관>

긴 여정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듯  
긴 신앙여정 중인 우리에게  
하느님의 위로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  
예수님은 세 제자만을 위하여  
특별한 위로를 마련하신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까지 구름 속에서 들린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곧 세상을 떠나신다니!  
그냥 이대로 여기에서 영원히  
우리끼리 지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무심결에 내뱉은 베드로의 말은  
늘 예수님의 현존을 일깨워주고  
순간순간 현실적인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마음을 보는듯하다.

행여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할까봐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던 특별한 위로가  
이젠 필요치 않다고,  
이젠 당신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할 용기가 아직도 없는 것일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들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병자영성체(1째주)<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br>울뜨레아(4째주)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그룹반)<br>M.E. Sharing(3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소년 레지오 마리아<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전 9: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페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 • 제대회<br>-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30<br>오후 1:00<br>오후 1:45<br>오후 1:00<br>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한기현 도밍고                                                                                                                          |
| 특전미사 |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이은지 수산나 & 이영진 테오날도, 황효진 마태오, 황우진 안드레아, 김민아 첼리나                                             |
| 주 일  | (연)한기현 도밍고, 김금점 모니카, 김재순 아가다, 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주용범 아브라함,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김인영 베드로, 정영무 요셉 & 정은숙, 김종환 야고보               |
| 낮 미사 | (생)이윤조 클라라, 변혜정 올리아나, 신대진 베드로, 정훈모 바오로, 민석준 토마스 & 피에 가정 & 민영준 마르코, 김영길 안드레아, 고천웅 & 고규재 체칠리아, 오신재 메히틸다, 임재화 안나 & 박순희 로사,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5,5-12,17-18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 님 은 나의 빛, 나의 구 원 이 시 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주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제 2독서 필리피서(Pilippians) 3,17-4<또는 3,20-4,1>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루카(Luke) 9,28-36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입당 | 151          | 149   | 157  |
| 봉헌 | 409          | 261   | 268  |
| 성체 | We Fall Down | 291   | 291  |
| 파견 | 417          | 156   | 154  |

###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 성경을 기도하며 읽는 것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공의회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에 다가가기에 늘 권고하였던 위대한 교부들의 전통을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당신의 말입니다. 당신이(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는 당신이 하느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러한 방식의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보다도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함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상 오리게네스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최선의 길은 사랑이며,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scientia Christi)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위대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는 「그레고리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전념하십시오. 항구하게 이에 노력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지향으로 독서를 하십시오. 읽는 동안에 닫힌 문에 마주치게 되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지기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 대하여,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독서에 힘쓰면서, 흔들림 없는 충실함과 신뢰로 하느님 안에서 성경 안에 풍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문을 두드리고 찾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것들을 이해하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인주의적 접근의 위험성을 피해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은 친교를 이루기 위하여,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를 진리(Veritas)안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말씀, 교회를 건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언제나 교회의 친교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실상,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살아 있는 주체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

사목을 하는 사제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신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어느덧 28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마치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환자 방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중풍으로 십여 년 이상을 누워 계신 할머니입니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풀이 형편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십 년 만에 고백성사를 보신 할머니는 성체를 영하시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봉성체를 끝내고 돌아서려는 제 소매를 붙잡으며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신부님, 다음에 오실때 요구르트 한 개만 사다 주세요. 먹고 싶은데 이불에 자주 소변을 본다"고 주절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후에 봉성체를 할 때마다 할머니께 몰래 요구르트를 한 개씩 사다 드렸더니 얼굴이 밝아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할머니 집을 방문했고 병자성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성사 중에 눈물을 자꾸 흘리셨습니다. 병자성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꼬깃꼬깃 접은 만 원짜리 지폐 한장과 오천 원짜리 두 장을 제 손에 쥐여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돈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제 나에겐 이것이 필요 없어요.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불쌍한 사람에게 써주세요."

그날 밤 하느님 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제관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돈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때문은 지폐, 이만 원을

간직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투카 9,33)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고 있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행복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되기를 내심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두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도 별로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도 싫고 더 나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유혹'입니다. 영성적으로 지금 상태에 머물고 싶은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부활을 원하고 바로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행복의 이면에는 항상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모두 비슷한 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하곤 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절망한 적 많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러한 일들로 원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을. <이영 아녜스 / 수필가>

### 이번주 전례봉사가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이호미<br>엘리사벳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곽수민<br>히메리오    | 김교복<br>레오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최보나<br>보나      | 서용숙<br>에스텔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P.V.<br>1반   |

### 다음주 전례봉사가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보나<br>보나      | 신덕례<br>테레사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박민환<br>미카엘     | 송현식<br>바오로   | 모은기<br>다두     |
| 제2독서자 | 이은지<br>수산나     | 정광미<br>프란체스카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1,2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2주일(3월1일 금): 미사후 사순피정시작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가 다음주로 순연됩니다.
  - 사순 제3주일(3월8일 금):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4주일(3월15일 금):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5주일(3월22일 금): 하버/카슨 구역
  - 성 금요일(3월29일): P.V. 구역(오후 3시 야외 14처)
- ◆ 사순절 희생 애금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 애금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28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합동 판공성사: 3월19일(화)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2월23일(토) 오후 6시 3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황효진 마태오 ● 황우진 안드레아 ● 김민아 첼리나

◆ '새해맞이 나의 신앙다짐' 5행시 백일장 당선자 발표

지난 1월6일부터 2월17일까지 마감한 행사에 총 43명이 출품, 172명의 교우들이 추천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시상 : 오늘 주일(24일) 낮미사  
1,2,3등 시상. 이외 5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1등 : 임순 데레사

백.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는  
삼. 삼위일체 주 하느님  
위. 위엄이 그분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으니  
성.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  
당.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2등 : 권순길 체칠리아

백. 백번의 기도끝에 들려오는 하느님 말씀  
삼. 삼위일체 하느님 찬미영광 받으소서

위.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성. 성령안에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  
당. 당신의 향기 전달하는 자 되게 하소서

3등 : 이태옥 아가다

백. 백지처럼 하얗게 마음을 비워  
삼.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위. 위안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성. 성호를 정성스레 그으며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며  
당. 당신을 기쁘게 미소짓게 해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홍보분과장 ☎(310)594-9472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오늘 주일(24일) 낮미사 후 12시50분
- 장소 : 사제관 앞마당

◆ 전신자 대상 사순 피정

- 일시 : 3월1일(금: 저녁미사후), 2일(토: 특전미사후), 3일(주일: 낮미사 강론 중)
- 주제 : 성숙한 그리스도인
- 지도 : 오성균 요셉 신부(예수고난회), 면담 : 금/토 강의 후
- 고백성사 : 토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5시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육분과장 ☎(213)505-2941

◆ 성경공부(Lectio Divina)반 시작했습니다.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2층교실(동남쪽)
- 지도 : 오마우라 수녀

◆ 성혈봉사자 재교육

- 일시 : 3월3일(주일), 오후 1시30분
- 대상 : 성혈봉사자

◆ 남미 불우이웃 돕기 옷,담요,신발 수거합니다.

- 수집일자 : 3월10일(주일)까지 배식대열 방
- 헌옷과 담요는 깨끗이 손질해서 보내주세요.
- 문의 : 박홍룡 빈첸시오회장 ☎(310)283-587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24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주일학교(9학년 김치볶음밥)
- 3월3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8학년 하이라이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김관기 김대우 김영경 김영길 김찬구 김현숙 김호순<br>문향업 박선희 성미선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유선식<br>윤선희 윤 철 이근모 이근태 이우성 이재우 이태옥<br>임한나 전동훈 정규숙 정동호 조혜정 최기호 최길주<br>최미열 최희숙 한혁수 황인종 황지영 한길선례<br>송마이클 이크리스 | 합계 : \$3,750 |
|-----------------|-------------------------------------------------------------------------------------------------------------------------------------------------------------------|--------------|
| 성전헌금            | 김관기 김대우 김영길 김찬구 김현숙 김호순 문향업<br>박선희 성미선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유선식 윤선희<br>이근모 이근태 이우성 이일길 임한나 전동훈 정규숙<br>정동호 조혜정 최기호 최길주 최미열 한혁수 황인종<br>황지영 한길선례 송마이클 이크리스                    | 합계 : \$2,505 |
| 주일미사헌금: \$2,929 |                                                                                                                                                                   |              |
| 감사헌금 : 한길선례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오늘 주일(24일)부터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중에 '십자가의길' 기도를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진행합니다.

\* 24일 : 11,12학년 \* 3월3일 : 9,10학년 \* 10일 : 3,4,5학년  
\* 17일 : 6,7,8학년 \* 24일 : 유치부,1,2학년

### ◆ 남가주 가톨릭 종교교육 컨퍼런스 참석

- 일시 : 2월22일(금)~24일(주일)
- 장소 :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대상 : 주일학교 교사(본당참석자 : 스티라 남, 안젤라 박, 크리스 최, 앤디 이)

### ◆ 중등부(주일학교) 사순피정

- 일시 : 3월8일(금)~9일(토) 장소 백삼위성당
- 대상 : 6학년~8학년 참가비 없음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15일(금)~17일(주일) 꽃동네 피정의집(테메큘라)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60(3/1일 이후는 \$80)
- 준비물 : 성경,묵주,미사헌금,슬리핑백,재킷,세면도구,학교티셔츠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Deposit \$40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40명(인원제한)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                                         |
|-----------------------------------|-----|--------------------------|-----------------------------------------|
| 차 장                               |     |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                                         |
| 차 장                               |     |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                                         |
| 구역/장                              | 번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강순복 요세피나 213-675-0498<br>2/16(토) 오후 7시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한창주 요아킴 530-7702<br>2/9(토) 오후 6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br>2/8(금) 오후 8시 성당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713-7779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김대우 비오 378-8763<br>2/16(토) 오후 6시        |
|                                   | 2   | 유선영 클라라<br>424-241-5988  | 김세중 벤자민 310-4351<br>2/16(토) 오후 6시       |
|                                   | 3   | 신경희 클라라<br>424-903-5051  |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br>2/8(금) 오전 10시30분   |
| 토런스 남<br>이희경<br>크리스티나<br>818-6903 | 1   | 오창애 안나<br>974-2857       | 오창애 안나 974-2857<br>2/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박광자 소화대레사 634-6923<br>2/14(목) 오전 11시 성당 |
|                                   | 3   | 전하현 마리아<br>213-550-6653  | 송 미카엘 540-9032<br>2/16(토) 오후 6시         |
| 토런스 북<br>최미영<br>클라라<br>895-8624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박정희 마리아 800-3709<br>2/9(토) 오후 6시30분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이정자<br>아그네스<br>784-0585  | 1/2 | 주영애 켈마<br>818-640-3656   | 조소영 수산나 804-7645<br>2/9(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다<br>384-3289     |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br>2/8(금) 오후 7시      |
|                                   | 2   | 금유미 크레센시아<br>482-9108    | 금영도 베드로 541-4760<br>2/8(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br>2/8(금) 오후 7시      |
|                                   | 4   | 이귀란 아네스<br>617-3568      | 금명영 세실리아 617-3568<br>2/12(화) 오전 10시     |

### 이번 주 단체 모임

2월 사목회

오후 1시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남가주 소식

### ◆ 자마이카 선교여행 참가자 모집 (Mission Trip to Jamaica)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자"

- 일정 : 5월4일(토)~12일(주일)까지
- 지도신부 : 이유진 신부(순교자성당 주임신부)
- 참가비 : \$700(항공료만 부담)
- 신청 : 3월10일까지(준비모임 매주 일요일 7:30pm)
- 문의 : 순교자성당 사무실 ☎(714)897-6510

### ◆ CLC 영신수련 침묵피정(4박5일)

- 일시 : 2월27일(수)~3월3일(주일) 매리우드 피정센터
- 지도 : 류형렬 신부(예수회)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CLC)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양요안나(909)518-4376

### ◆ Food Bank에서 여러가지 식품을 제공합니다.

- 장소 : 가디나 아시안 커뮤니티센터(14112 Kingsley Dr.)
- 오전 9시~낮 12시(신분증 지참하고 오세요.)
- 구인 : 55세이상 파트타임(주30시간)
- 문의 : 조소영 수산나☎(310)804-7645

## 우리도 젠틀맨

나이가 들수록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맴돈다. 잘못된 나의 언행이 나의 영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세속을 살면서 성직자, 수도자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어떠한 삶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구체화 해주는 글을 만났다.

지난해 9월 창간한 뒤 매달 구독하는 남성용 잡지 「젠틀맨」에서 「젠틀맨의 조건」을 읽었다.

Good(좋은 남자라는 평판을 듣고 있음), Everyday(일상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함), Nature(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내고 싶어함), Tolerance(관용의덕목을 실천), Luxurious(가치 있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음), Enriched(풍요로운 인생을 지향), Manner & Attitude(신사다운 매너와 태도를 갖추), Neutral(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음) 9가지다.

이 조건이 가톨릭 신앙인의 자세에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톨릭 신앙인은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좋은 평판(Good)을 들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일상의 행복(Everyday)은 찾아오는 법,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과 평화로이 산다면 행복한 삶이다.

신라의 화랑들과 조선 시대 선비들이 풍광 좋은 자연을 찾아다닌 것은 자연이 주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다. 우리도 자연(Nature) 속에서 기도하고 피정을 하면 얼마나 편안했던가.

가톨릭 신자는 너그럽다. '주님의 기도'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듯이'라는 기도문처럼 관용(Tolerance)을 실천한다. 우리는 이승이 아니라 하늘에 금은보화를 쌓는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베품(Luxurious)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이다.

가톨릭신앙인은 풍요롭다(Enriched).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여유롭다.

신앙인의 매너와 태도(Manner & Attitude)는 남달라야 한다. 단정한 외모와 옷차림, 가톨릭 신앙인다운 품격이 우러나는 자세를 갖추자. 가톨릭에 담겨 있는 의미는 보편타당이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열린 자세(Neutral)를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젠틀맨'이다.

◆김상진 요한 / 중앙일보 · JTBC 부산총국장

## 신앙인의 초심은 감사의 마음

선교 사제 피정을 다녀왔다. 장소는 요코하마에 있는 한 피정 센터였다.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1년 만에 만나는 신부님들과의 해후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도 잠시,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했을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동료 사제들의 얼굴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강사는 이미 오랜 기간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회 신부님이였다.

피정 첫날, 신부님은 '초심'이라는 말마디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신부님에게 있어서의 초심, 그것은 오래전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에 왔을 때 당신을 도와 준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다. 듣고보니 그랬다. 'Fidei Donum'(신앙의 선물이란 뜻, 교구 사제이면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 사제를 말한다)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라도 처음부터 선교사의 삶을 꿈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저 주님 손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신앙이란 선물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로서 가장 합당한 마음,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리라 공감했다. 하느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평생 노력하고, 느낀 감사에 더욱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피정 후, 우리는 인근에 있는 한 동료 사제의 본당을 방문, 새 사제 2명과 함께 첫 미사를 봉헌했다. 강론 때, 새 사제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저는 서품을 앞두고 1년간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서품을 받기에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노인요양원에 들어가 노인들을 돌보며 "주님, 정말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제발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바치고 있었던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견 한 마리가 요양원을 찾아왔단다. 처음에 이 개는 간호견으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았다. 살갑지도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재주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점점 노인들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한 마리의 훌륭한 간호견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뒷이야기다. 이 체험이 그에게 은총의 이끄심으로 다가왔고, 용기를 내어 기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초심이란 말이 계속 내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주님 없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를 더 가까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분께 매일같이 향기 짙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마음이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일본 히로시마선교